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다”

■ 이종윤 원로목사

한국교회는 일제시 칼날같이 무서운 핍박도 이겼다. 공산주의 폭경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자를 배출했다.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고 있다. 그 위기의 핵심은 죄다. 그 죄가 일만약의 뿌리인 돈과 아담을 넘어뜨린 공명심이다. 이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예사롭게 생각하고 위기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한기총이 왜 필요한가 차라리 해체하자는 이들의 소리까지 들려오지만 그들의 본래 목적은 해체가 아닐 것이다. 오죽했으면 그런 소리까지 들리지는지 정말 눈물이 난다. 한기총은 친목단체도 사업단체도 아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봉사단체다. 개교단이 못하는 것을 교단의 공동분모를 찾아 섬기기 위해 조직된 연합단체다. 실행위원회 성감위원회지 대표를 뽑는 위원회가 아니다. 현재 60여 개가 넘는 교단 협의체로 분과위가 30개가 넘는다. 사이비들이 회원으로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다는 비판적 여론도 알고 보면 모두가 물욕과 공명심과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어쩌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모든 것이 커지면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교회도 커지다 보니 허세를 부리기 위한 가짜박사, 세속적으로 향락을 취한 위선적 지도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야욕을 못 이겨 금권선거 등을 자행하면서 돈을 썼더니 당선되더라는 해괴한 양심선언까지 나왔다. 그 돈은 누구의 돈이며 어디에 썼나를 묻는 진실 게임이라도 하는 날엔 한국교회는 박살이 날 판이다. 속히 회개하면 아직도 희망은 있다. 이대로 밀고 나가면 죽는 길 밖에 없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는 없고 면류관만 쓰겠다는데 문제가 있다. 불신사회조차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와 타락의 소굴로 바라보았던 중세기보다 덜하지 않은 오늘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소리가 들리기 전 회개해야 한다.

몇 천 명을 거느리는 추기경 같은 목사들과 수십만을 대표한다는 교황 같은 위세를 부리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타락케 하고 있지 않은가. 불신사회에 덕을 세우기는커녕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된 오늘의 한국교회를 누가 구해낼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재생하려면 홍역을 한번 치러야 한다.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셨다. 싸워서 이기는 법은 없다. 악마와는 야합하거나 타협치 말고 대적해야겠지만 주안에서 형제된 성도와와는 싸우는 것을 악마는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은 슬퍼하신다. 유능한 목사라도 싸우는 선봉에서 영웅적 투사로 선 사람들은 모두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교회 위해 일을 하는 영광스런 직분을 갖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분쟁을 하는가. 공산당도 이겼는데 돈 앞에 무릎 꿇은 한국교회가 안타깝다. 가난하면 먹이면 되지만 씹은 것은 안 된다. 현금을 하나님께 바친 제물로 보지 않고 돈으로 보니 옹용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돈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 어느 단체에서 총회장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어느 교회당에서 하자 했더니 총회장님을 어떻게 교회로 모십니까 호텔로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개도 웃을 발언이 나온 적도 있다. 목적 변경은 범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친 성도들의 현금을 연합기관의 장이 되기 위한 선거 비용으로 썼다면 8계명을 범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 영성도 이성도 다 떠났다면 지나친 진단일까. 하나님과 성도를 무시한 지도자의 종착역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도소 아니면 교회의 책벌을 받아 영원히 어둠이 지배하는 곳으로까지 가게 될까 두렵다. 상대방의 눈을 밝기 위해 내 눈을 밝히려는 식은 이성도 지성도 영성도 마비된 자의 행태다.

영성이 없는 할량이 미달된 자가 지도자라고 우쭐대는 모습은 겸손히 기도과 자기회생이 필요한 영적 지도자의 자세는 아니지 않은가. 한국교회가 다 썩은 것은 아니다. 회생과 겸손의 허리띠를 띠고 중의 모습으로 묵히 잘하시는 이들이 많이 있다. 한기총을 해체하면 안 된다. 나라가 부패했다고 해체하면 그 백성들 어찌될까. 한기총은 애국 이상으로 교회가 지키고 사랑해야 할 기구다. 칼빈은 도덕적으로 부패했어도 분리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연합체의 지도자들이 묵히 하듯 섬기면 그리고 편법이 아닌 진리의 경도를 걸으면 존경과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법정 고발이 성경적인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 한편 강도는 지옥에 떨어졌지만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한 또 다른 강도는 천국에 갔다. 제발 성경이 금한 세상 법정투쟁은 중단하고 내 잘못입니다 하는 경직된 회개만이 자신은 물론 한국교회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2012년 1월 14일 발췌-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부터는 종교시설 관련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일부 대면예배가 재개 됩니다

다만 참석 가능인원이 예배실 당 정원의 10%미만 최대 99명 이하로 제한된 관계로 다락방장/교구 간사를 통하여 사전 신청하신 분들만 신청하신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본당은 2층만 사용하여 인원이 초과될 경우 웨민홀에서 예배를 드릴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교회 대면예배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이전처럼 실시간 온라인 중계되는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뿐 아니라 주일 찬양예배, 새벽예배, 수요일예배도 교회에서 대면예배로 드리며, 교회학교는 당분간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주 주보에 공고한 대로 오늘 주일 찬양예배 후 부목사 청빙 관련 제직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개최하려던 장로후보 선출을 위한 제직회는 현 대면예배 허용 인원상 공동의회까지 열기는 어려워 향후 방역단계 변경으로 허용 인원이 확대될 때 개최할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0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10815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임목사 조동수
전도사 박미라 안용곤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교육전도사 허은 이대원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권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우),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허미소(일본), 김낙형·오정녀(캐나), 김종일·백승미(외국인 노동자), 박병성(총회), / 이사,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스브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스,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도, 이금순, 김영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임(말리우), 이재물·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국가의 영광과 수치 ”

■ 대하 26:1-8

오늘은 제76주년이 되는 광복절입니다. 선진국이라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를 의미하지 않고 선진화된 의식 수준을 가진 국민이 있는 나라입니다. 1945년의 광복을 넘어 존경받는 국가의 모습을 갖춘 새로운 광복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앞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시고 어떤 시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지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한 개인의 생애에 하나님의 극진한 축복과 냉철한 징계와 심판이 함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웃사야 왕의 경우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여지는 복을 누렸는가 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병 환자가 되고 권력에서 축출되어 별궁에 거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 국의 모습을 보인 그의 생애가 주는 교훈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국가 사회에 끼쳐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 웃사야의 신앙

웃사야는 다윗의 때로부터 제12대 유다 왕으로 16세 때 즉위했습니다. 무려 52년간을 재위하면서 나라의 큰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치적을 남겼습니다. 웃사야 왕의 치적을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주변을 평정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만성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는 주변의 여러 부족들의 잦은 침공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사야가 왕이 되고 주변 지역들을 평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솔로몬 시대 이후 중단되었던 조공을 재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웃사야 시대의 영토는 가장 번영했던 시기인 다윗 시대만큼이나 확장되었고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했습니다.(6-8절) 백성들에게는 농업을 장려하고 식량생산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식량 지급시대를 성취했습니다.(9,10절) 동시에 그는 무기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했습니다.(14절) 웃사야의 이 저력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스가라 선지자의 영적 지도를 잘 받아들였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웃사야 시대의 부흥은 그의 겸비하고 정직한 신앙이 만든 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최고의 문제는 영적 자산, 정신 자산의 빈곤에 있습니다. 모든 것에 천박한 물질주의가 난무하고 모든 분야에서 권력에 대한 욕망 논리가 작동하는 데서 온갖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국민 전체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독하고 거친 표현을 일삼고 있습니다. 공존과 일치의 가치는 사라지고 독점주의가 난무합니다. 이런 정신으로는 부흥하는 시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우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정신인 사랑, 정의, 평등, 성실 등의 가치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실과 정직의 저수지가 되고 우리 삶의 자리들이 사랑과 정의의 실천 현장이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해법은 신앙입니다.

2.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간 웃사야가 시험에 빠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고 하는 일마다 흥통하고 국내 외에 그를 향한 칭송이 자자할 때 그는 마음이 교만해지는 시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금지되었던 마지막 한 가지까지도 생취하고 싶었습니다. 곧 종교적 권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를 허락하실 때 모든 국가들처럼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셨지만 한계는 매우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벗어난다면 안 되는 것과 종교적 분야의 일은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두어 제사장들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웃사야는 이 일도 자신이 친히 하고 싶어졌습니다.(16절)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 때 제사장 아사리가 동료 제사장 80명과 함께 왕의 가는 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는 제사장들을 뿌리치며 결국 분향을 시도했고 집요하게 반대하는 제사장들에게 분노할 때 그에게 나병이 생겼습니다. 웃사야 왕의 삶에 스며든 교만이 무엇입니까?

- 1) '내가 했다'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의 시대가 빛나는 역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셨기 때문'이며(5절),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15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해지면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 2) 자기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삼습니다. 웃사야 왕은 제사장 80여 명이 간곡히 만류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만 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최대 약점은 자기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웃사야가 바로 자기 실수를 인정했다면 그는 훨씬 더 견고한 통치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3) 자기 영광만 구합니다. 웃사야 왕은 자기 권력과 영광을 과시하려 성전 제사까지 직접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을 부끄럽고 분노하게 했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기쁨 보다 함께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줄 아는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국가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힘을 과시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정의를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며 악을 행하는 범죄입니다.

우리는 웃사야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대와 버리시고 징계하시는 시대의 모습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겸손할 때 복을 주셨고 교만할 때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과 지도자들이 겸비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까요? 아니면 교만할까요? 그것이 국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박정선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임상헌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21: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9(나라 사랑 1)...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515(256)...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대하 26: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합 께
 봉 헌 Offering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합 께
 설 교 Sermon ...“국가의 영광과 수치”...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516(265)...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합 께
 성 시 시 46:1-3 인 도 자
 찬 송 67(31) 다 합 께
 기 도 류충기 집사
 성 경 수 24:1-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회고와 감사” 설 교 자
 * 찬 송 56(60) 다 합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합 께
 I부 오전 11시 ·인도: 서명철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부: 문승순 권사 II부: 김정숙 권사
 성 경 수 24:14-3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나와 내 집은 여회를 삼겠노라” ... 설 교 자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서명철 목사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경	정혜은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암문 사람들이 웃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웃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대하 26:8)		
영어예배	예루살렘				금주의 성구			
수요 I부	호산나	구민영	안효주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제직회 - 안건 : 부목사 청빙에 관한 건 / 찬양예배 후 본당

◆ 알 림

1.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501호 예배 및 부서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5. 601호 부서 예배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2호 부서 예배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7. 603호 부서 예배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8. 609호 부서 예배

세례 문답식 : 주일 오후 1시30분-3시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9.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702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1. 새가족 등록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층 안내데스크에서 예배 전, 후로 새가족부에서 등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장 례

1. 故 박상준 성도(11교구 박민경 성도의 부친, 조필상 성도의 장인) / 8월13일(금) 별세, 15일 발인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종교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른 예배 안내 (8.9.부터 지침 변경 시까지)

- 주일 1,2,3부, 찬양예배, - 대면, 실시간 생중계
- 수요1부 예배 - 대면, 실시간 중계
수요2부 예배 - 대면, 수요 1부 예배 녹화 방송
- 새벽기도회 - 대면, 실시간 중계

따라서 수요 2부 예배를 제외한 모든 실시간 중계예배는 각 해당 시간에 드리시면 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새벽기도
1,619명	407명	2,026명	476명	1,823명

🌳 절제와 근신

자기 절제와 근신은 기독교인의 중요한 덕성 중의 하나이다.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마치 동물과 같아 본능적인 하급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게 될 것이고 근신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헤매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절제하고 근신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는 것은 타인에게 주기 위함이니 주기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과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절제해야 한다.

또한 근신한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알지 못할 때에 쫓던 옛사람의 사욕을 버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휴대하여 마귀의 공격을 방어 할 뿐 아니라 제어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절제와 근신의 생활을 통해 영적 새 질서 속에서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합심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